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18. 11. 1.(목)	
배포 부서 및 담당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중국연구센터 • 김세원 전문연구원(+86-21-6090-0395, ksw@kmi.re.kr)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KMI 중국물류포럼 텐진에서 개최, 물류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 2018년 제1차 『KMI 중국물류포럼(텐진)』 개최
- 날짜/장소 : 2018. 10. 29.(일), 텐진시 웨라톤 호텔 2층
- 주제 : 중국(텐진) 물류정책 변화 및 물류환경 개선 방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2018년 10월 29일(일) 중국 텐진시(天津市) 소재 웨라톤 호텔에서 KOTRA 텐진무역관과 천진한국인(상)회가 후원하는 2018년 제1차 『KMI 중국물류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KMI가 중국 수도권의 관문인 텐진에서 우리나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물류 애로사항 및 환경규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텐진 소재 우리나라 기관 및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양창호 KMI 원장의 개회사(김종덕 정책동향연구본부장 대독) 및 박종표 KOTRA 텐진무역관, 신동환 천진한국인(상)회 회장(채형기 상임부회장 대독)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4명의 한·중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표자인 황춘웬(黃春媛) 남개대학교 경제학원 부교수는 ‘징진지

지역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항만물류 산업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환경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환경규제 수준과 물류산업 효율성은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오염관리 효과도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 다음으로 김세원 KMI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중국의 물류정책 및 중국 진출 우리나라 화주기업의 물류애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 효율화 정책에 대한 소개에 이어 화북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화주기업의 애로요인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KMI 중국연구센터는 올해 들어 중국의 화남, 화동, 화북, 서남 4개 권역의 우리나라 중소, 중견 화주기업 167개사를 대상으로 물류애로 사항 및 정부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전체 결과 중 화북 지역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화북 지역 소재 우리나라 화주기업(제조·무역기업)들은 ‘높은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세 번째 주제발표는 이정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칭다오 지사장이 ‘중국 비관세 장벽 대응 : 인허가 및 상품검사’라는 주제로 ‘비관세 장벽의 추세’에 대해 소개했으며, 중국의 다양한 인증제도들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KTR 등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증 관련 지원 사업들을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 마지막으로 박종국 한국수출입은행 상하이대표처 부장은 ‘중국 외채관리제도 변경 동향 및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지원 안내’라는 주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관련 자금대출, 금융보증, 비금융 자문서비스 등 해외진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했으며, 최근 외채 관리 부분에서의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 주제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등연제(鄧延潔) 중

국교통운수부 수운과학연구원(WTI) 주임이 총평자로 나서, 최근 국무원이 발표한 “운송구조 조정 3년 액션플랜(2018년~2020년)”의 교통운송 부분에서도 환경보호를 엄격히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도로운송이 친환경 운송인 철도 및 수운으로 더욱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텐진항의 화물구조도 과거의 오염 발생이 많은 벌크화물 중심에서 점차 고부가가치 화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 다음으로 총평에 나선 한국 물류기업 팩트라(PACTRA)의 신동준 이사는 중국 현지의 물류기업들도 화주의 물류애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 경쟁력은 이미 중국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며 발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정부 혹은 공기업에서 직접 투자 및 운영하는 공동 물류센터가 건설된다면,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두 명의 총평이 끝난 후 참석자들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제1회 중국물류포럼』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MI 중국연구센터 김세원 전문연구원(86-21-6090-0395, ksw@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